

교 회 소 식

1.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성령강림 후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까지 예전 색깔 녹색이 계속 되며 생명, 희망, 성장을 상징합니다.
2. 다하나교회에 처음 오신 분과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 주일학교 졸업생들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 유아부 : Claire Yue, 전아리아
 - 초등부 : 장하울
 - 중등부 : 김선율, 김태균, 위예준
4. 생일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 22 : 김보현

*다음주 예배봉사자

- 기도: 이건영 / 설교번역: 위충일
- 6월 안내 및 봉사: 주나 목장

*향후 교회 행사 (Church Plan)

- 야외예배 : 8월 24일, Silver Lake Park

*성서일과 Lectionary (제 25주)

사 65:1-9 / 시 22:19-28 / 갈 3:23-29 / 눅 8:26-39

교회세운날 2017.6.11

25-25

6월 22일 (성령강림 후 둘째 주일)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주 일 예 배 : 매주 주일 오후 3시
수요기도회 : 6월부터 8월까지 쉽니다.

3401 SALEM RD SW, ROCHESTER, MN 55902

Web : <https://mnrochesteroneheartchurch.com>

담임목사 : 김경현 목사 (213-357-7614)

예 배 순 서

인도자: 김경헌 목사

예배로의 부름과 기원 — 신 33:2b-3 — 인도자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기도 — 성백찬

찬송 —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같이

성경봉독 — 요나 1: 1-3 — 인도자

설교 —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 김경헌 목사

봉헌찬송 —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 5절) — 다같이

봉헌기도 — 인도자

교회소식 — 인도자

*파송찬양 —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 다같이

*축도 — 인도자

* 표에는 일어납니다.

목회편지 / 초록빛 사람들

어느 새 교회력은 성령강림절과 삼위일체 주간을 지나, 연중 시기(年中 時期)로 접어들습니다. 사순절과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등의 굵직한 절기들 사이의 이 고요한 기간은 반년 가까이 지속됩니다. 이 고요한 기간은 하늘에 오르신 주님의 가르침을 성령님과 함께 일상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살아가는 실천의 시기이지요. 교회는 이 기간에 생명과 희망, 성장을 나타내는 초록색 예전 색깔을 사용합니다. 푸른빛 짙은 이 기간에 우리는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사나흘에 한 번씩 옥수수 밭에 나가 옥수수 성장 사진을 찍었습니다. 처음에는 옥수수 싹이 땅을 비집고 수줍게 나온 모습이 하도 반가워서 사진을 찍다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 지 기록으로 남겨 보고 싶어 시도해 본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자라는 속도가 너무 빨라 사진 찍기를 포기했습니다. 바장이는 아기의 유아 시절에 사진 엄청 찍어 대다 제법 커지면 무슨 사진이냐 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캘리포니아에서 미네소타에 왔을 때 가장 크게 느껴진 차이는 초록의 깊이였습니다. 스프링클러로 키워낸 켈리의 초록이들과 자연이 만들어낸 창세기표 초록이들의 농도 차이는 확연했습니다. 고향 산천의 소나무 이파리 바탕의 초록과는 또 다른 채도의 초록이 생소했습니다. 생명과 성장의 깊이와 농도가 다른 미네소타의 초록은 제가 이곳에 와서 가장 사랑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미네소타 사람들은 6월에 결혼을 가장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곳에 살아보니 6월만한 때가 없지요? 푸르른 6월을 지나는 우리는 생명과 희망과 성장의 복판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초록색 표지의 책 한 권이 왔습니다. 제주도 출신의 친구와 책 이야기 하면서 <작별하지 않는다>의 제주도 방언을 너는 해석할 필요도 없이 다 이해하겠구나 했더니, 너도 해석할 필요도 없는 책 한 권 소개해 주마 한 책입니다. 녀석은 이 책을 읽는 내내 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박노해 시인의 <눈물 꽃 소년>입니다. 박노해 시인은 저와 고향이 같은 함평 출신의 시인이십니다. 바닷가 농사꾼의 아들로 자란 시인은 어릴적 이야기들을 전라도 사투리로 하나도 여과 없이 구수하게 풀어냅니다. 그가 말하는 들녘을 상상할 필요가 없었고, 그가 말하는 바닷가를 꾸며낼 필요 없이 기억과 경험을 더듬으며 작가와 함께 호흡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어린 날의 이야기가 내 어린 날의 향수를 자극하자 자연스레 눈물 샘이 터집니다. 시인은 서른 세 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맨 첫 이야기는 할머니의 심부름으로 눈에 벼 이삭이 얼마나 고개를 숙였는지 확인하고 오는 것입니다. 어린 시인은 눈으로 가는 길을 몰라 할머니에게 못한다고 했더니, 할머니는 사람들에게 물어 물어 가보라고 미션을 줍니다. 성공하고 돌아온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어물어 찾았당께요. 할무니가 사람이 지도람시요.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하고 물으께요, 다 잘 갈쳐주고 이빠해 주든디요.”, “잘했다, 잘했어. 그러려, 잘 몰라도 괜찮다. 사람이 길인께. 말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듣는 사람이 빛나고, 안다 하는 사람보다 잘 묻는 사람이 귀인이니께. 잘 물어물어 가면은 다아 잘 되니께.” 사람이 지도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생명과 성장 그리고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의 본 바탕은 초록빛이 분명해 보입니다. 초록의 자연이 영감을 주고 빚어낸 사람들이니까요.